

보이지 않는 동물들

반려동물인구 1500만 시대라고 합니다. 반려동물 시장은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가장 ‘핫’한 시장입니다. 저도 고양이 한 마리를 데리고 삽니다. 제 주변 지인들 중에는 고양이, 강아지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무슨 사료를 먹는지, 어떤 동물병원을 다니는지, 웬수같은 캣타워는 쓰는지 안 쓰는지 등을 이야기하다가 열심히 사진 자랑하면서 반려동물 토크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곤 합니다. 반려인들의 SNS는 자신의 귀여운 반려동물 사진으로 가득 차있기 마련이죠. 집 앞에 공원에 나가보면 주인과 산책을 나온 강아지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저런 다양한 종의 귀여운 강아지들을 만나는 재미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는 도시에서도 다양한 동물들과 더 자주 마주치며 살게 되었습니다. 반려동물인구 1500만 시대라는 것이 실감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차원에서 많은 동물들과 함께 하고 있죠. 제 집 앞에는 식당이 많은 편인데요,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되었을 때마다 가장 사람들이 몰렸던 가게들은 단연 고깃집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고기를 직접 구워먹는 것을 좋아하지요. 먹방과 쿡방에서도 고기를 알맞게 지글지글 굽는 장면을 단연 압권으로 꼽곤 합니다. 얼마나 싱싱한 고기를 쓰는지 얼마나 훌륭한 마블링을 가진 한우를 판매하는지를 식당 광고나 쿡방이나 홈쇼핑에서 늘 보곤 하지요. 우리는 정말 많은 양의 고기를 먹습니다.

최근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육식이 탄소배출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꽤나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핵심에는 동물의 공장식 축산이 놓여있습니다. 육류의 생산과 소비가 이토록 늘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공장식 축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동물을 공장에서 만들어내듯 생산한다는 뜻이죠. 고기의 생산성을 위해 최적화된 축사, 즉 다수의 동물을 보유할 수 있도록 최대한 좁고, 먹이주기와 분뇨처리가 최대한 효율적인 스톨에서 동물들이 살게 됩니다. 몸집을 빠르게 키울 수 있는 종의 계발, 의약품에 의한 질병 관리, 동물들의 스트레스로 인한 카니발리즘-동물들이 서로를 공격하고 먹는 행위-을 막기 위한 처리, 관리하기 쉬운 사료의 대량 공급 등이 바로 이러한 공장식 축산에 포함되는 ‘프로세스’입니다. 이러한 산업 전체가 바로 막대한 탄소배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공장식 축산에서 동물들이 겪는 이야기를 하는 것까지 나아가게 되지는 않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이 공장식 축산으로 키워지는 닭, 돼지, 소의 이야기라든가 푸아그라나 송아지고기처럼 최고급 요리 재료들이 생산되는 과정에 대해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언급하기 꺼려질 만큼 처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식재료가 되는 동물들이 공장식 축산 과정에서 어떤 일을 겪는지를 알게 되면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 역시 동물 문제에 관심이 많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된 채식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니니까요. 그런데 한 번씩 공장식 축산 이야기를 하게 될 때마다 한 동안 더욱 육류 섭취가 꺼려집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지 않을까 합니다. 곧 평소대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 사실을 알게 되기 이전과 그 이후가 완전히 동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감정을 쉽게 흔들 수 있을 수준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공장식 축산의 문제성이 간과되는 것은 바로 그 동물들이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고기가 되기 위해 ‘공장 안’에서 짧은 생을 살다가 떠나버리니까요.

동물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동물권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고통의 문제’에서 찾습니다. 인

간이 모두 육식을 당장에 그만두는 것이 윤리적으로 옳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고기를 섭취하는 일이 동물들을 날개를 퍼거나 몸을 한바퀴 돌릴 수도 없는 철창 안에서 살게 하거나, 부리나 꼬리를 자르고, 태어나자마자 바로 분쇄기 속으로 들어가게 되거나, 운동부족 상태나 고통스러운 비육 상태에서 죽게 하는 고통을 줄 정도로 합리화할 만한 일인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인간들의 고통처럼 동물의 고통도 결코 단일하지 않습니다. 동물들을 공장식으로 생산하는 우리의 삶의 방식은 인간이 동물을 먹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는 말로 단순화될 수 없습니다. 어떤 동물실험이 인간과 다른 동물이 집단으로 사망하는 위험을 사전에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동물실험은 더 품질 좋은 샴푸와 더 트렌디한 색깔의 마스크라를 만들기 위해 토끼의 눈을 멀게 합니다. 동물의 고통은 인간을 위한 불가피한 ‘부산물’이 아니라 어려운 결정을 포함하고 있는 윤리적인 영역의 문제인 것입니다. 물론 공장식 축산 문제가 자주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축산 환경을 개선하거나 방목을 선택하는 농가가 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공장식 축산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 외면된 영역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개별 농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장식 축산은 당연히 상당한 자본의 투자가 필요한 일입니다. 개별 농가들은 대기업의 수주를 받는 하청 형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대 자본 투입이 가능한 기업들이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게 되는 일도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양의 대규모 공장식 축산이 이루어지는 미국이 대표적이죠. 한국에서도 양계 산업은 독점적 지위를 가진 업체에 의해 전체 농가들이 수직계열화된 문제가 자주 거론되는 분야입니다. 동물이 자본에 의해 무한 증식할 수 있는 육류 상품이 되는 것이죠.

앞에서 저는 인간과 반려동물과의 관계는 크게 가시화된 반면, 인간이 자신이 먹는 동물과 맺는 관계는 비가시화된 영역에 머물러있는 간극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반려동물과의 삶을 살게 된 많은 사람들이 동물권과 공장식 축산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일이 많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과학은 고통스럽고 건강하지 않게 키워지는 동물들이 인간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조사 결과들을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인간과 동물의 불가분한 관계를 상기시켰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서 인간과 동물 사이의 더 나은 공존에 대한 논의가 보다 본격적으로 시작되길 바라봅니다.